

마취도 없이 고양이 잔혹 수술 ‘충격’

광주 모 대학 베트남 국적 연구원, 유튜브에 버젓이 올려 시민들 ‘분노’

“중성화수술 500달러 이상 들어 직접 수술했다”
극심한 통증에 울부짖는 모습 그대로 담겨 끔찍
동물보호단체, 동부경찰에 3명 고발 엄벌 촉구

광주의 한 대학교에 적을 둔 베트남 국적 연구원이 마취를 하지 않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잔혹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영상을 접한 동물보호단체는 잔혹한 수술을 진행한 인물이 동물 수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작성한 것으로 지난 1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가 13일 동부경찰로 이첩됐다. 라이프 측은 고양이 수술을 진행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지역 한 대학에 적을 둔 연구원 A씨를 비롯해 베트남인 3명이다.

이들은 지난 달 자신들이 기르던 수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동물단체 조사를 거쳐 조만간 베트남 국적 연구원 A씨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문제의 영상은 1분 40초 분량으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급히 삭제됐다.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A씨가 광주 집에서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지인 등 구독자들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 등 3명이 등장한다. A씨가 수술을 하는 동안 한 명은 고양이를 붙잡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고양이 마취도 없이 음낭과 고환을 절출당해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라이프 측은 전했다.

라이프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 전 마취를 해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처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의사법 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 측은 “영상을 본 사람이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자 A씨가 마취약을 구할 수 없고 중성화 수술 비용이 500달러(65만원 수준) 이상이 들어서 직접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다”고



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 캡처 장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주장하고 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A씨는 본인이 약리학을 전공해 문제가 없다는 답글까지 남겼다는 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적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법원 “사회해악 크다”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 3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감옥살이를 하면서라도 살아야 하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광주서 광산구 신가동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한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산소방 제공>

렌터카-SUV 충돌, 고교생 등 3명 사망

광주서 새벽 불법 유탄하다 참변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렌터카와 SUV 차량이 충돌, 렌터카에 타고 있던 고교생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께 광주서 광산구 신가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렌터카(SM6 승용차)와 GV80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광주 모 고등학교 학생 A(19)군과 20대 초반 남녀 등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렌터카에서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운전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차량은 올해 초 면허를 딴 A군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SUV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고교생이 탄 SM6 승용차가 맨 끝 차선인 4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

변하던 중 2차로에서 달려오던 GV80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이 탄 승용차는 광산대교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 신가동 주유소 앞 4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틀었고, 이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던 GV80 차량이 승용차 운전석을 들이받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혔다.

경찰은 사망자가 나온 렌터카 차량의 경우 불법 유탄을 하던 중이었고, 뒤에서 달려와 충격한 GV80 차량 역시 과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렌터카 차량 탑승자는 고교생 등 탑승자 전원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남녀 모두 중상을 입어 관련자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경찰은 SUV 차량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측에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웃 성폭행·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피해자 살아있는 것 처럼 연락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별다른 진심이 없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감금했고 집에 놓인 현금을 챙겨 겁박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청하는 등 피해자 집에서 장시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를 괴롭혀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원을 찾고 돌아와 피해자를 질식사시켰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신고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살해했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마약 밀반입 판매 유학생 등 검거

미국에서 마약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엘 에스티(LSD)와 엑상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LSD와 엑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 총액 A(27)씨와 판매책 B(30)씨를 구속했다가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엑상대마 등을 사들여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3)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귀내로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엑상대마를 몰래 반입했다.

A씨는 판매책 B씨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현금을 받고 LSD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맺은 친분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